

못난 자식 만든 잘난 아버지들

위대한 남자들이 자식 때문에 울었다

모리시타 겐지 지음/양역관 옮김
황소자리/기만천원



케네디 · 헤밍웨이 · 간디 등
세계사를 장식한 남자 10명과
부모의 왜곡된 욕망으로
불행했던 자녀들의 삶 조명

조지프 케네디와 에드워드,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그레고리, 윈스턴 처칠과 랜돌프, 토마스 에디슨과 토마스 주니어, 마하트마 간디와 할리랄, 폴 고갱과 에밀, 조지 5세와 에드워드 8세... 등, 이들의 공통분모는 부자(父子)지간이다. 공통점을 하나 더 들자면 여기에 등장하는 자식들은 모두 부모들을 울렸다는 것이다. 왜 이들은 위대한 부모를 닮기는커녕 비틀어진 길로 나갔을까. 거대한 벽갈나무 옆에서 자라는 어린 잎은 정작 햇볕을 보기 힘든 것일까. 세계사를 풍미한 10명의 남자와 그들의 못난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책 <위대한 남자들이 자식 때문에 울었다>에서 저자는 '잘난 부모들이 바로 자식을 그렇게 만든 주인공이다'라고 쏘아 붙인다. 그만큼 아버지의 부와 명성을 딛고 편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것 같지만 실제 자식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은 것 같다.

1898년 발명왕 에디슨의 장남 토머스 주니어가 사기죄로 고발 당했다. '전기 활력 회복기'라고 이름붙인 가짜 건강 기계를 만들어 '갑거나 운동 장애' 뿐만 아니라 만병통치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시중에 판매하다 적발된 것이다. 보다못한 에디슨은 아들의 회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아들의 회사는 문을 닫았다. 둘째 윌리엄도 똑같았다. 여러 사업에 손을 댔으나 하는 일마다 실패한 윌리엄은 결국 매주 40달러씩 아버지가 보내주는



돈으로 연명해야 했다. 아들들이 이 지경이 된 건 에디슨의 책임도 있었다.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에디슨은 늘 공교육을 부정했고 아들에게도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에디슨은 늘 바빴고 자식들은 무식하고 병든 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다.

처칠도 마찬가지였다. 1963년 미국의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 '6만4천달러의 질문'에 영국 런던에서 건너온 52세의 중년 남자가 출연했다. 우승 축하파티를 위해 정원에 목련나무까지 사서 머리 심었다며 기고 만장했던 이 남자는 두 번째 문제에 걸려 망신당한 당한 채 퇴장해야 했다. 이 남자가 바로 어린시절부터 경박하고 씩씩 노랑기로 유명했던 처칠의 외아들 랜돌프다. 대학을 중퇴하고 사교계에 심취했던 랜돌프는 정치를 하겠다고 24살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그러나 무려 6번이나 떨어졌고 타고난 낭비벽 때문에 고생을 하다 결국 술 때문에 57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러면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인 간디의 아들은 어땠을까. 아버지의 삶에 누를 끼치지 않

으려고 발버둥쳤던 간디의 큰 아들 할리랄은 친구에게 사기를 치고 술과 여자에 빠져 사는 등 방탕한 생활을 했다. 원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 했던 아버지 때문이었다. 간디는 아들들을 늘 무시했다고 한다. 할리랄의 기행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의 비애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밖에도 이 책에는 자신의 뒤를 잇는 욕망을 자식들에게 강요한 케네디와 록펠러, 자신의 이기적 성취욕을 달성하기 위해 자식을 내팽개쳐 버린 헤밍웨이와 고갱, 아이를 부모의 분신으로 여기며 자식의 인격권을 인정하지 않은 조지 5세와 막시밀리안 2세 등의 일화가 소개돼 있다.

'자식은 부모의 지나간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는 말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부모의 왜곡된 욕망과 행동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전수되며, 또 그들의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일그러뜨리는지를 반성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새내기 출발을 앞둔 학부모들에게 효과적인 자녀교육 지침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사진 위) 오른쪽부터 윈스턴 처칠과 랜돌프. (사진 아래) 케네디가의 3형제들. 왼쪽부터 존, 로버트, 에드워드.

시대를 대표하는 걸출한 작가로 이름을 남긴 헤밍웨이. 그가 소설로 아들의 불안한 미래를 예견하기 전에 따뜻한 부성으로 아이를 안아주었으면 어땠을까?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레고리의 삶과 죽음이 남기는 안타까움이 너무도 크고 무겁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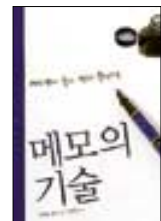
▲아무런 실무 경험도 없고, 부정한 대리 시험으로 퇴학을 맞고, 습관처럼 만취운전을

하는 등 테드는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성격적으로도 공황에 빠지기 쉬웠으며 급할 때는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지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인물이었다. 그 테드를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원 의원으로 만든 사람은 아버지 조였다. 테드는 케네디 가의 형제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로보트 같은 성격이 가장 강했다. 테드라는 인격은 아버지가 억지로 만들어 낸 것이었다.

책속의 밑줄긋기

▲서민이든 위대한 부모이든 그리고 불초자식이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참으로 말로 설명하기 힘든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엄청난 고뇌를 대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평범한 인생에 만족감을 얻기도 하고 아쉬운 한숨을 내쉬기도 할 것이다.

▲타고난 광기와 예지력을 극대화시키며 한



얼마전 TV에서 하버드 대학의 수재 한국인을 취재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그 학생의 공부비결은 끊임 없는 메모와 스케줄 관리에 있었다.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CEO들의 경영 비결을 인터뷰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생활습관에서 '메모'를 빼놓지 않았다.

메모의 기술

사카토 겐지 지음/고은진 옮김
해바라기 퍼블리싱 7천8백원

비단 '메모'는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홀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 수많은 정보들 중 우리가 한번에 기억할 수 있는 두뇌의 용량은 한정돼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메모'를 한다.

이 책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메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메모하는 이유에서부터 메모에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는 방법, 상황별 메모 방법까지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수첩을 활용한 가로 줄 무늬 패턴의 편집과 소재목 아래 내용을 정리해 주는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편집은 메모의 기본 법칙을 살려주고 있다. 무엇보다

메모에도 정리가 필요하다

효과 두배로 높이는 메모활용사전

다도 이 책은 지금까지 '메모'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메모의 습관화나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더욱 폭넓은 시각을 형성시켜 준다. 전에서 활용도가 크다.

법무사관 직업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건의 메모를 하고, 다시 그 메모를 버리고 지우는 일상을 반복하는 나로서는 '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메모를 활용하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마음속에 불꽃처럼 남아 있던 메모의 기본 체계에 대한 갈증이 일순 해소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만큼 이 책은 메모의 기술과 활용에 대한 모든 것이 사려 깊게 담겨 있다. 일종의 '메모 활용사전'인 셈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메모가 꼭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남에게 무슨 내용을 전달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메모는 자신의 직분과 상황에 따라서도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직장 상사가 되었을 때 부하직원으로서 상사를 대할 때, 회의를 주재할 때와 회의에 참석할 때 등에 따라서 메모의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마구 잡이식 메모를 즐겼는데 이 책을 통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메모하는 법을 배워 실천하고 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일상업무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책 말미에는 △언제 어디서든 메모하라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라 △기호와 암호를 활용하라 △중요 사항은 한 눈에 띄게 하라 △메모 시간을 따로 마련하라 △메모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라 △메모를 재활용하라 등 메모의 7가지 기술도 소개돼 있어 실용적이다.

부디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대로 메모하고 활용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조해 내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인생의 목표를 이뤄가기를 바란다.

■김영광(법무사)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x 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 (直) (02)737-8881 (代) |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 지난 호 구입가격은 6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지난호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